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271 (로사리오 기도 드릴 때)	210 (나의 생명 드리니)	198 (성체 안에 계신 주님)	12 (주님을 기리나이다)

제 1독서 | 창세기 2,18-24

화답송 |

◎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우)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좌)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우) 네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기를! ◎

제 2독서 | 히브리 2,9-11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10,2-16

영성체 후 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Today's Gospel - Mark 10:2-16

Some Pharisees approached Jesus and asked, 'Is it against the law for a man to divorce his wife?' They were testing him. He answered them, 'What did Moses command you?' 'Moses allowed us' they said 'to draw up a writ of dismissal and so to divorce.' Then Jesus said to them, 'It was because you were so unteachable that he wrote this commandment for you. But from the beginning of creation God made them male and female. This is why a man must leave father and mother, and the two become one body. They are no longer two, therefore, but one body. So then, what God has united, man must not divide.' Back in the house the disciples questioned him again about this, and he said to them, 'The man who divorces his wife and marries another is guilty of adultery against her. And if a woman divorces her husband and marries another she is guilty of adultery too.'

People were bringing little children to him, for him to touch them. The disciples turned them away, but when Jesus saw this he was indignant and said to them, 'Let the little children come to me; do not stop them; for it is to such as these that the kingdom of God belongs. I tell you solemnly, anyone who does not welcom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ever enter it.' Then he put his arms round them, laid his hands on them and gave them his blessing.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교부들의 성경주해>

하느님께서서는 아담에게 수많은 짝지를 맺어주실 수도 있었지만, 오직 한 사람만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모든 일에서 동등하게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나눈다면 혼인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테르툴리아누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는 하느님께서 육화 안에서 인간과 결합하시는 것에 비길 수 있습니다(오리게네스). 한 몸에 대한 성경의 원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아우구스티누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짢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종종 사랑과 자비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우에 맞지 않는 행동을 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감싸주고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 참으로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식별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랑과 자비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잘못이든 허용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하느님의 계명과 질서는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내가 악을 저질러도 하느님이 알아서 용서해 주실 테니까요. 이것은 정말 커다란 악의 유혹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번식하고 더 강력해지는 경향이 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865항)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이 사랑 가득한 분이였음은 분명합니다. 미움받는 세리 출신의 마태오를 제자로 받아들여셨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으며,(마태 9,9-13 참조) 간음한 여자를 단죄하지 않으셨습니다.(요한 8,1-11 참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것만은 아닙니다. 불의에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성전 정화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요한 2,13-22 참조) 또한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자 “왜 나를 치느냐?”(요한 18,23)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진실을 왜곡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사랑의

기준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이들은 스스럼없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한편, 윤리적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과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마태 11,20)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지요? 사랑과 자비라는 이름에 숨어 나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낙태, 동성애 행위, 부정부패와 같은 세상의 잘못을 용인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선악의 기준을 편의에 따라 스스로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요. 성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진리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들은 사라지고, ... ‘편한 마음’이라는 기준에 그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일부 진리는 윤리적 판단의 주관적 사고에 적응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진리의 광채> 32항) 누군가는,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왜 여전히 보수적인 윤리를 고수하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맞춰 변화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가, 혹은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면, 교회의 가르침을 분명히 인지하고 성사를 통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이 그를 따뜻한 사랑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의 삶은 반짝이는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공지 사항

1. 여정 '시즌 2' - 영적독서 모임

- 가톨릭 신앙과 관련한 책을 선정하여, 정해진 분량을 함께 읽고, 나누는 '영적독서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임은 한인성당 Zoom 온라인 회의실에서 이루어집니다.

- 일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시간이 되신다면 '독서모임' 전 '묵주기도'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기간: 11월 초 ~ 12월 말까지
- 인원: 총 8명까지
- 신청 접수는 성당 이메일로 독서모임 **신청자의 성함과 세례명**을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10월 20일**까지입니다.

* 이메일 주소: canberra.kcc@gmail.com

2. 캔버라 교구 사제서품식 미사

- 서품대상자: Mark Ha 부제님
- 일시: 10월 17일(목), 5:00pm
- 장소: St Christopher's Cathedral

3. Archdiocesan Assembly 초대

크리스토퍼 대주교님께서는 모든 분들을 '오소서 성령이여'라는 주제로 열리는 Assembly에 초대하고자 하십니다. 이번 Assembly는 '성령의 해'를 기념하며, 앞으로 우리 지역 교회의 삶과 사명에서 복음화와 시노달리타스에 관하여 기도 안에서 대화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Assembly에서는 10월 19일(토)에 교구청에서 9AM-4PM까지 'Conversations in the Spirit'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주임 신부에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링크 :

<https://www.cgevangelisation.org.au/assembly/>

| 미사 참례자 수 |

9월 22일	유아·청소년: 17명	성인: 51명
9월 29일	유아·청소년: 31명	성인: 69명

| 온라인 묵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10월 6일)	이상명 다니엘, 이재희 루시아
다음주 (10월 13일)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10월 6일)	루카반
다음주 (10월 13일)	마르코반

| 우리들의 정성 | (9월 28일 ~ 10월 4일)

봉 헌 금	\$ 614			
교 무 금	\$ 840			
권모순	김정수	김천주	김태룡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윤현태	이국원	이지영
이재희	전인철	정은영	조성희	주정자
최원미				

| 기도 지향 |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 투병 중인 모든 환자분들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